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 종교 개혁 506주년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7 장 “예수 앞에 나오면” (통일 20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4 번 (종교개혁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Romans)8:1-11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영화롭도다”	찬양대
설 교 Sermon	“주께서 살리시리라” (He Will Also Give Life to You)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 마음 내게 주소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2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을 구했던 개혁 신앙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부단히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복음적인 삶은 살아내지 못했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거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개혁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 신앙의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개혁개정 롬 8:11)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NASV Romans 8: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29 (주일)	10/30 (월)	10/31 (화)	11/1 (수)	11/2 (목)	11/3 (금)	11/4 (토)
	왕하10	왕하11,12	왕하13	왕하14	왕하15	왕하16	왕하17
본문	딤후1 호2	딤후2 호3,4	딤후3 호5,6	딤후4 호7	딤후1 호8	딤후2 호9	딤후3 호10
	시119:97-120	시119:121-144	시119:145-176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수 오후730)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벧전1:13-25)
토요 새벽기도회 (11/토 오전630)	“아베스의 기도” (대상4:9-11) – 윤영록 장로

지난 주일(10/22) 말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14)

로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고 온전하게 설명하는 바울 신학의 정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를 세 단어로 정리하면, 1)첫째는, 깨달음(Enlightenment)이고, 2)둘째는, 신앙적 결단(Spiritual Resolution)이며, 3)셋째는, 삶의 열매(Fruit of Lif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깨달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서,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자주 강조하셨고, 심지어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마 13:19)라고 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진지한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깨달음이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면, 결단은 (이러한) 해석에 대한 재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 15:5)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1)깨달음과, 2)진지한 신앙적 결단, 그리고 3)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